

# 도교육청, 회복적 생활교육 전문가 양성

### 2020 실천가 72명 양성과정 직무연수 개강 현장 의견 반영해 확대 시키도록 힘 쓸 예정



전남도교육청이 학생생활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잡은 회복적 생활교육을 현장에서 이끌 실천가 및 전문가 양성에 발을 견어붙이고 나섰다.

다. 이 연수에는 지난해 회복적 생활교육 리더양성 과정을 이수한 교사들이 참여하며, 이날부터 오는 2월 1일까지 30시간 일정으로 진행된다. 연수는 교육지원청의 연수 강사 지원 및 학교 내 갈등상황에서의 화해조정 지원 인력 양성을 위한 회복적 생활교육 심화교육과정으로 운영된다.

도교육청은 앞서 28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초·중·고 교사 43명을 대상으로 '2020. 회복적 생활교육 실천가 양성과정 직무연수'를 시작했다. 이번 연수는 회복적 생활교육 확산을 위해 필요한 각종 연수의 강사요원을 양성할 목적으로 개설됐다. 이날부터 6월 13일까지 총 55시간을 배정해 이론과 실습을 병행해 진행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회복적 생활교육 전문가 양성을 위한 '2020. 회복적 생활교육 전문가 기본과정 직무연수' 개강식을 가졌

준비 로드맵 만들기 등을 중심으로 연수를 운영한다. 연수참가자들은 연수 후 회복적 생활교육 현장 실천과 학교 컨설팅 및 각종 교원 연수의 강사로 활동하며 회복적 생활교육의 선도 역할을 하게 된다.

도교육청은 지난해에도 회복적 생활교육 리더양성과정을 개설해 41명의 전문가를 양성한 바 있다. 올해는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 권역별 연구회 활성화, 학생 평화교실 운영, 지역사회와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평화공동체 구축에 더욱 힘을 기울인다.

김성애 학생생활안전과장은 "2019년 민선3기 장석우 교육감 공약사업으로 시작한 회복적 생활교육은 2020년에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더욱 확산되도록 하겠다."며 "연수를 통해 양성된 전문가들이 구성원 간 관계회복으로 안전하고 신뢰받는 학교 실현의 기반을 마련할 것이다"고 말했다.

허성은 기자



## 전남 곡성 아이들의 만·지·락 여행

<간담·한지·즐거움>

삼기초등학교가 돌봄교실 학생들을 대상으로 1년 동안 전통문화 예술 활동으로 한지공예 특색 프로그램을 운영해 호응을 얻고 있다.

학생들은 겨울방학중에도 다가오는 설날 명절의 유래를 알아보고 한지를 이용해 제기, 연 날리기,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초등돌봄교실은 농산어촌의 소규모 학교에서 학생 8명을 대상으로 주2회 1시간씩 연중 운영하고 있다. 전통문화예술교육 소외지역 학생들에게 다양한 예술적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사교육비 절감과 다양한 예술적 경험과 사라져가는 우리나라의 전통문화예술에 대한 관심 및 애착심을 고취시키고 있다. 또한, 창의적 표현 활동으로 진로 및 재능 개발 기회의 시간이 되고 있다.

학생들은 버려지는 폐지를 활용해 지호(종이죽) 만들기, 떡살문양을 활용한 브로치 만들기, 전통 탈 물드름 활용한 나만의 포인트 액자, 전통 매주, 물드(수생생물, 곤충, 채소)를 활용한 머리핀, 브로치, 전통 탈, 달걀 만들기, 버려지는 지관을 활용한 화분을 만들어 다육을 길러보는 활동을 했다. 또

한 제8회 전국안동한지대전에 참가해 6명이 입상하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그 동안의 성과물을 삼기초등학교 마당(가을이야기)에 전시해 학생들의 창의력과 상상력을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도 가졌다.

임하준 학생은 "엄마가 된장 만들 때 쓰던 매주를 만들어 보니까 재미있었고, 지호공예로 매주를 만들 때 네모 모양이 잘 안 되어 매일 만져주니까 잘 만들어져 기분이 좋았다."고 말했다.

김무연 학생은 "버려지는 지관을 이용해 다육화분은 만들어 다육을 기르는 과정이 한 달이 넘게 걸려 힘들고 어려웠지만 다육이를 직접 기른다는 생각에 보람을 느꼈다."고 말했다.

브로치를 선물 받은 한소영 학부모는 "아이들이 직접 손으로 여러 과정을 거쳐 만든 소품을 선물로 받게 돼 고맙고 감사하다."고 말했다.

김희숙 돌봄전담사는 "학생들이 자원 활용의 중요성을 알아가고, 다채롭게 만들었던 자신의 생활소품을 그림과 사형시로 표현하면서, 창의성을 기르고 이를 통해 창의인으로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2020학년도 친환경 쌀 공급업체 및 공급가격 결정

### 친환경 식재료 사용으로 안전한 학교급식 실현

광주시교육청이 지난 21일 '친환경 우수식재료 공급협력업체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0학년도 친환경 식재료 공급업체를 선정하고 품목별 공급가격을 결정했다.

광주산 친환경 무농약 쌀 20kg의 공급가격은 5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82% 인상 결정했다. 또 친환경 고춧가루 1kg의 공급가격은 34,000원, 김치(포기김치) 1kg의 공급가격은 4,000원으로 결정했다. 여기에는 친환경 식재료 확대

정책, 생산자 물가지수, 공급업체 희망가격 등을 반영했다.

2020학년도 친환경 식재료 공급업체 선정과정의 투명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친환경 우수식재료 공동구매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기준을 정했다. 이후 평가위원단을 구성했고, 지난 12월12일부터 12월20일까지 서류평가 및 현장실사, 품평회 등의 결과를 반영했다.

2019년산 광주지역의 친환경 무농약 쌀은 1,820톤으로 광주 전체

로 구매해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했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한편, 2020학년도의 친환경 우수식재료비 총액은 102억 원으로 전년대비 12억 원 증가했으며, 중식 기준 학생 1인당 지원단가는 300원으로 전년대비 50원 인상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광주지역에서 생산된 친환경 쌀 전량을 학교급식으로 구매함에 따라 친환경 쌀 재배 면적이 계속 늘어, 우리고장의 청정 환경을 조성한 것에 자부심을 느낀다"며 "친환경 우수식재료 지원금이 늘어남에 따라 단위학교도 친환경 식재료 구매비율이 높아져 학교급식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조인호 기자

## 영광공공도서관과 육군 후은대대 MOU

영광공공도서관은 지난 28일 육군 31사단 예하 후은대대(이하 후은대대)와 협력체제 구축을 통한 독서 인구 저변 확대 및 상호 발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순회문고 운영, 독서문화프로그램 및 강연회 운영, 상호 홍보 및 프로그램 운영 지원, 기타 협조가 필요한 사항 등에 상호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후은대대 관계자는 "영광공공도서관에서 그동안 지원해 준 순회문고에 감사한다"면서 "이번 협약으로 후은대대와 공공도서관간

독서 인구 저변 확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해 주셨으면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영광공공도서관 장혜란 관장은 "우리 지역의 향토 부대인 후은대대 장병들을 위한 순회문고, 독서 골든벨 대회 및 인문학 강연 개최로 장병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병영 생활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면서 "후은대대와 협력 사업을 활발히 진행하여 상호 상생하는 방향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영광=서희권 기자

## 전남교육청, 청렴 시민감사관이 달린다

전남도교육청 청렴시민감사관들이 2020년 '청렴 전남교육 실현을 위한 발걸음을 힘차게 내디뎠다.'

전남도교육청은 30일 전남교육연구정보원 1층 중회의실에서 청렴시민감사관의 2019년 활동성과를 평가하고 2020년 활동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청렴시민감사관 2020년도 제1차 정기협의회를 개최했다.

청렴시민감사관들은 이날 회의

에서 지난해 종합감사에 참석해 전남교육 현장에서 보고 느낀 경합을 공유하고, 활발한 토론을 통해 올해 추진할 연간 활동 계획을 수립했다.

지난해 7월 출범한 전남도교육청 청렴시민감사관은 교육·정치·경제·법률·건축·인권 등 각 분야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 지역사회 인사 50명으로 구성됐으며, 권역 별 4개 분과로 운영되고 있다.



청렴시민감사관은 교육청, 직속 기관, 학교 등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특정·재무·시설기동 감사나 민원조사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학

